DBpia

敎 育 心 理 硏 究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98. Vol. 12, No. 1, pp. 27~34.

<기조강연>

교육심리학의 교육현장 적용과 과제

黃 禎 奎(서울대학교)

1. 빛과 그림자

1998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발표 및 토론원고 준비자에게 전달된 안내문 속에 들어 있는 '본 학술대회의 성격 개요'를 알리는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본 학술대회의 성격 개요[1]

>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실제에 적용시키는가의 문제는 학자들이 어떤 세부영역을 전공한다해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화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심리학회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세미나에서도 이런 주제를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육심리학의 논문들은 교육학의 다른 분야의 논문들에 비해 '이론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 우리 학회 내부 및 외부 학자들로부터 늘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경향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심리학의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성격(한국 심리학회의 논문들도 이런 비판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론 자체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현실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의 논문 안에 이론과 동시에 실제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제한된 지면(그래도 보통 이론적 내용 다음에, 짧지만 교육적 시사점을 언급해 왔습니다), 이론보다 실제를 강조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내용의 가벼움(아마도 현실의 맥락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가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일 것입니다.
>
>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적어도 교육심리학의 경우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술대회는 '동전의 뒷면'을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즉 교육심리학의 현장적용과 과제의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발표자 및 (종합) 토론자께서는 본 대회의 이런 성격과 배경을 고려하여 집필하여 주십시오.

---

* 따옴표는 필자의 것임.

www.dbpia.co.kr

이 내용을 여기에 전제하는 이유는 한국의 교육심리학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늘상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두고 있으면서 꺼내어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햇빛 속에 드러내어 그 실상과 진실을 있는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전의 뒷면' 혹은 '그림자'를 학문공동체가 정면으로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빛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면 그림자는 없는 것이다.

어느 학문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며 주변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데 대한 생각과 신념은 고정적이라기보다 유동적이다. 교육심리학 분야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지난 몇 십년 사이에 엄청난 변모를 겪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교육실천의 무대와 성격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변모를 겪었다. 아마 21세기의 한국 교육의 무대와 조건은 더 크고 깊은 변화와 혁신의 세대가 될 것이다.

본인이 맡은 '기조강연'의 담론을 더 전개하기 전에 '교육심리학의 교육현장 적용'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교육심리학 속에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학문적 성격인 교육과학과 교육실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론과 응용, 과학과 실천, 기초와 주변이라는 이분틀과도 관련된다.

'교육심리학'은 '교육심리'라는 실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교육심리'라는 실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 양태이며 그것은 교육이 존재하는 시공간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같은 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곧 '교육'의 실체와 '심리'의 실체가 합해진 것이 '교육심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흔히 '교육심리학'을 '교육학'과 '심리학'으로 양분하고 그 둘의 접합, 합병되는 곳에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영토가 파생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순수과학인 '심리학'에서 밝혀진 개념, 원리, 법칙, 이론의 교육현장에의 응용, 혹은 교육적 응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교육심리'라는 실체에 대해 연구할 때 그 중 '교육심리의 실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심리현상'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의 연구가 진행된다. '교육심리현상'과 '교육심리의 실천 행위'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교육심리현상'에 관한 연구자는 제반 교육심리현상을 관조하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의도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존재하는 대상을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기술 혹은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객관적이다. 이에 반해 '교육심리의 실천 행위'에 관한 연구자는 '교육심리'라고 판단되는 혹은 '교육심리'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교육의 실천 행위의 본질과 그 원리를 규범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그것에 준한 현실적 방법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겨냥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히 실천적이고, 응용적이고, 규범적이며, 처방적이다. '어떤 교수변인이 좋은 교수방법인가?', '어떤 교육심리적 실천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주로 던진다.

편의상 전자를 '교육심리과학'이라고 하고 후자를 '교육심리실천학'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오늘의 이 학술대회 주제는 앞에 제시한 '본 학술대회의 성격'에 비추어 전자가 '이론적인 연구'이고 후자가 '교육실제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동안 우리 교육심리학계의 연구가 전자에 치우쳐 후자를 망각했거나 적어도 경시해 온 결함이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 연구'는 동전의 앞면 혹은 빛이요 망각되어온 '교육실제에의 적용'은 동전의 뒷면 혹은 그림자로

www.dbpia.co.kr

표현하고 있다.

교육학 연구는 어느 분야이든지 이같은 두가지 성격의 학문 즉 '교육과학'과 '교육실천학'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나 간극과 갈등, 부조화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심리학' 속에도 이 두가지 성격의 실체가 존재하며,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 교육심리학을 연구하는 학문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육실제에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원인 탐색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다고 본다. 이 글도 이같은 시각에서 몇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2. 국지이론(local theory)

'교육심리' 를 연구하는 학문공동체의 입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개의 조류가 형성되어 있음을 본다. 한 쪽에서는 물리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심리학의 연구 경향에 따라 교육심리에 관련된다고 추정된 교육 실체에 대해 일반 법칙의 발견과 일반 이론의 형성에 주로 관심을 쏟는 시각이 있다. 그들은 심리학과 교육학을 구분하며, 교육심리는 심리학의 교육적 응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심리학 연구를 실험실 연구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실험조건의 통제, 실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의 통제와 같은 순수한 실험실 연구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일반법칙 및 일반이론을 개발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심리'의 실체는 이같은 순수한 실험실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이(variation)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극히 보편적이고 또 자연스럽다. 이같은 변이는 크게 학생(학습자, 피교육자)이 보유하고 있는 제 특성에서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 교육적 개입을 위해 제공되는 환경(조건, 교육방법)(environments), 그리고 문화적 유산으로서 전수하려는 내용(contents)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세가지의 변이에 따라, 그리고 그들 변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교육심리'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고 또 그것을 위한 적용과 실천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의미에서 교육심리학은 '맥락 속에서 개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심리학이 개인 자체, 개인의 행동 혹은 특성에 관한 일반법칙을 연구한다면 교육심리학은 '맥락 속에 있는 개인', 좀 더 문학적 표현을 빌리면 '맥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지 종류의 맥락 각각과 그들 상호관계,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과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요구된다. 교육심리학이 성립되었던 역사적 배경도 '개인차'의 확인에서 출발했다. 개인차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양태를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고 '심리학'이라는 일반 체계에서 결별하고 '교육심리학' 자체를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향은 그대로 이어져 이제는 환경, 내용의 변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www.dbpia.co.kr

맥락 속의 인간행동 = f(개인차, 환경, 내용)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개인차에 따라, 환경이 다름에 따라, 내용이 다름에 따라 인간의 행동 표출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심리라는 실체에 관련된 일반법칙, 보편법칙은 존재하지 않거나 별의미가 없고 개인차, 환경, 내용의 변이에 따른 국지법칙(local laws)의 발견과 체계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심리학 연구자들은 그동안 가능하지도 않은 일반법칙의 발견과 보편이론의 개발이라는 신기루 잡기에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 목표를 잘못 세운 탓에 낭비한 비용이다.

교육심리학 연구가 교육실제에 가치있는 의미와 적용에의 시사를 주기 위해서는 개인차에 관한 정보가 환경(교수방법, 프로그램, 개입조건 등)에 따라, 문화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화하는 연구, 그리고 이들 세 맥락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법칙의 체계화가 중요한 표적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지법칙이다. '강화는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보편법칙 보다 '만약 그것이 수학과목일 경우, 그리고 만약 학생의 수리적성 능력이 낮고 공간적성 능력이 높다면, 그리고 만약 구성적 동기가 높다면 계속적 강화보다 간헐적 강화를 이용한 교수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국지법칙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이 교육실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황정규, 1995).

국지법칙은 제한된 범위에만 활용될 수 있는 법칙과 이론이다. '제한된다'는 것은 곧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의 특징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심리학은 실제적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통제조건을 가한 실험실의 인공적 상황 속에서 발견한 보편법칙이나 이론보다는 살아 숨쉬는 교육의 맥락 그 자체에서 발견한 국지법칙이 더 적용력이 큼을 시사한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타당도(ecological validi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외국 및 국내를 막론하고 국지이론의 탐구와 그 축적은 이제 겨우 시선을 보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육심리'의 실체에 관련한 국지이론의 축적 없이는 교육심리학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은 점에서 교육심리학 연구는 심리학을 닮으려는 짝사랑을 포기하고 '의학'과 같은 다학문적 접근의 가치와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세전환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과정(process)

교육심리학에 관한 탐구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을 하려는 사람(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의 '손에 붙잡히는', '손에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교육심리학의 연구는 대개 정태적 형태로 개념화된 '특성'(traits) 변인으로 진술되었다(예컨대, '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형태의 서술적 진술문은 과학적 이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적절하지만, 즉, 순수과학을 지향하는 심

www.dbpia.co.kr

리학의 진술방식으로는 적합하지만 '교육심리학'의 서술양식으로는 부적합하다.

교육(pedagogy)은 어떤 형태로든 의미있는 교육적 행위를 가해서 인간을 변모, 도야, 발전, 성장, 완성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를 전재하고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긍정적 자아개념'이라는 특성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어떻게 학생에게 생기게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경우 문제는 특성의 기술에 있기 보다 특성이 움직이는 과정(process)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중요하다.

1960년 이후 교육심리학의 주된 시각이 행동주의에서 인지심리학으로 전환되면서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연구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로 중심축이 옮아갔다. 언어와 사고, 메타인지, 인지전략 등은 인지과정을 표현하는 몇가지 변인들이며 귀인, 자아효능감은 동기적 변인의 예이고, 전략적 교수, 교사의 계획과 의사결정 등은 과정으로 이해하는 교수변인이다.

교육심리에 관련된 현상을 '과정변인'으로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교육심리학'을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manage)라는 방향과 방법을 지시해 주기 때문에 현장 적용력이 강하다.

이같은 의미에서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변인은 과정변인으로 진술되고, 탐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교육심리학 연구의 대부분이 정태적 성질을 띤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사 및 학부모가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연구의 진술을 어떻게 구체적 현실문제나 상황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받기 힘들었다. 흔히 교사들이 교육심리학에 관련된 '대학강의'를 듣거나 '연구보고서'를 읽고 난 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호소한다. 이같은 불만의 원인이 상당부분 강의 내용이나 연구 논문의 추상성, 현학성에도 있지만 다루어진 변인의 성질만으로는 교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시사해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반성해 봄직하다.

4. 텍스트의 확장

텍스트(text)의 원래 의미는 쓰여진 기록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자인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영향 이후 텍스트는 사회적 실체(social reality)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실제, 제도, 문화적 산물 등 인간행위와 사고 및 감정의 결과로 창출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교육심리학' 학문 공동체에서 그동안 연구와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특징은 구조화되어 있고, 표면적이며,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같은 성질을 띤 텍스트로는 자연히 양적 분석과 경험적 법칙 수립이 주된 접근방법으로 동원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전체를 텍스트의 원천으로 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종류의 텍스트와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서전, 일화, 놀이, 작문, 대화, 예술작품, 운동, 여가활동, 가정에서의 생활, 특별한 모임에 관련된 사건(제사, 성묘, 관혼의 모임 등), 특정

www.dbpia.co.kr

장소에 관련된 인간행위(노래방, 만화방, 공연장 등) 등 모두가 중요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교사나 부모의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텍스트를 상상할 수 있고 또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교육심리'에 관련된 현상을 추론하고 그러한 현상에 관련하여 의미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것들은 곧 '교육심리학' 탐구를 위해 중요하고 가치있는 텍스트의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로 학교 속에서의 생활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아도 텍스트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은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텍스트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교육심리학'이 그 동안 다루었던 '텍스트'의 종류나 범위는 스스로 출입금지 구역을 정해 놓고 더 이상 접근하기를 외면해 온 셈이라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관행이 결국 '교육심리학'의 연구와 이론을 왜소화시키고, 현장의 삶의 모습과 거리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현장적용 가능성에 한계를 갖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다루던 텍스트와는 다른 텍스트를 다룬다는 것은 동시에 연구방법에도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흔히 '질적 연구방법'이라는 이름 밑에 논의되고 있는 각종 연구방법이 교육심리학의 주된 연구방법의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 인류학과 민속학에서 사용하던 민속지학법, 참여관찰, 심층면담, 담론분석, 해석학적 분석, 비판적 분석, 생태학적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들 질적 연구방법들은 그것이 발달한 배경자체가 경험과학적 연구가 지나치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추상화하였다는 비판 위에서 개념, 법칙, 이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신호, 메시지를 찾기 위해 도입된 방법론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적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된 '교육심리학'적 이해와 해석, 의미는 곧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찰스 E. 실버먼(Silverman)의 '교실의 위기'(1977)도 교육심리학의 전통적 연구 시각에서 보면 괘를 벗어난 접근방법이지만 이 연구가 교육심리학 연구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연구는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보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더 크게 기여한 '교육심리학'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장르(genre)의 확장도 필요하다.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장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발달, 인성과 사회성·정서, 인지능력과 개인차, 학습이론, 동기, 효과적인 교수, 측정과 평가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같은 장르는 거의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얼개로 보인다. 교육심리학의 교육현장 적용이라는 시각에서 이 이외 확장되어야 할 장르가 없는가? 적어도 두가지 분야의 장르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학교 교과의 '교육심리학'적 접근이다(educational psychology of school subjects). 위에서 언급한 교육심리학의 전통적 장르도 그것으로 현장 적용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장르에서 형성한 원리와 이론이 '학교교과'라는 특수내용에 관련된 원리와 이론으로 재구성되지 않고 그것이 현장 적용의 일반화 가능성이 있을까는 의심된다. 예컨대 '국어'는 그것대로 '수학'은 또 그것대로 전혀 다른 학문의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장르에서 밝혀진 '전이이론'도 특정 교과와 접목될 때는 상당한 변용을 겪거나 수정된 체계를 요구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교과 교육심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제공하는 원리

www.dbpia.co.kr

와 이론의 교육현장 적용은 언제나 '눈높이'를 벗어난 추상적 실체로 머물수 밖에 없다.

둘째, '교수심리학'(psychology of teaching) 분야의 장르를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현장 적용은 대개 '교수'의 문제에 관련된다. 교사가 피교육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며, 도움을 주느냐에 관련된 교육적 개입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교수와 수업'에 관련된 교육심리학적 연구나 접근은 점근선적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본격적인 장르의 탐색에는 미흡하다. '교육심리학'에서 '학습이론'을 다루는 것만큼 '교수심리학'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현상이 파생되는 이유가 '교수심리학'에 관한 연구의 축적, 이론의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것, 전통적인 교육심리학 학문공동체의 시각에서 보면 덜 '심리적'이라는 생각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심리학'의 장르로서 '교수심리학', '수업심리학', '교사행동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인식, 그것의 발전 없이는 현장의 개선이나 교육적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5. 창의적 링커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연구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또하나의 문제점은 이론과 실제, 연구실과 현장, 이념과 현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해 주어야 할 링커의 역할이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준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준실천가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심리학 분야에 관련된 이론의 탐색,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자'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을 학자라고 부르건, 연구자라고 부르건, 교수라고 부르건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교육심리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 법칙, 이론의 개발과 그것의 연구에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실제 적용해야 할 곳은 학교, 교실, 가정 등 교육현장이며 대개의 경우 교사와 부모들이다. 전자는 이론과 연구의 탐구를, 후자는 그것들의 현장 적용에 관심이 있다. 전자는 학자이면서 전문가인 반면 후자는 실천가이면서 비전문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발한 이론과 연구를 비전문가가 현장의 실천에 바로 번역해 적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같은 직접적 이행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전문가' 혹은 '학자'에 의해 밝혀진 이론이나 법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추상성 수준이 높아서 그것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는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나 이론은 단순성을 태생적 제약으로 지니고 있다. 이론을 다룰 때는 현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적용 자체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설계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연구와 이론의 추상적 수준의 의미를 현장 적용의 구체적 상황에 번역하고 설계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창의적 링커(creative linker)가 필요하다. 이들 링커들은 이론을 현실에 비추어 번역하고 접목시키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여 실천의

www.dbpia.co.kr

감각이 있는 사람, 현실적 한계와 복잡성 그리고 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개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일을 자진해서 즐기는 사람들이다(직책으로 보면 연구사, 장학사, 주임, 교감들로 보면 무난할 것이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쪽에도 이같은 역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같은 교육심리 이론과 연구의 현장 적용 전문가는 적용 설계사(application designer)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들은 이론과 적용이라는 일차원 척도 위에서 보면 중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링커의 층이 두터울 때 이론의 현장 적용은 쉽게 확산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실수요자', '학자'와 '실천가'라는 양극단의 집단만 존재할 뿐 그것을 이어 줄 중간 집단으로서의 링커층이 얇고 적다. 따라서 이론은 이론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유리된 채 전혀 이 두 역할 사이에 접목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도는 결과를 빚고 있다.

연구실의 이론과 현장의 실제 사이의 괴리는 비단 교육학 분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도 존재한다. 또한 교육학 분야 중 '교육심리학'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등 다른 영역에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심리학 영역의 독특한 괴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심리학 분야는 교육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이론과 연구의 과학성, 복잡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소비자인 교사나 부모 단독으로는 '연구에서 현장에로'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 적용에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적용 설계사' 혹은 '창의적 링커'층이 두터워지고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는 강력하다.

참 고 문 헌

황정규 (1995). 개인차와 학교학습: 접근의 대안 탐색.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0,** 1-43.

찰스. E. 실버먼 (1977). **교실의 위기** (배영사 편집부 역, crisis in the classroom), 서울: 배영사.

www.dbpia.co.kr